

대간 위 텅빈 초등학교... 아이들 어디 갔을까



◇용문산과 국수봉 사이의 전망대 바위.

백두대간 속으로 (14)

추풍령 → 국수봉 → 크재

봄 산은 그대로 꽃이다. 더불어 피어나는 연초록 새싹과 소나무의 짙푸름이 이루는 조화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을 무색케 할 만큼 다채롭다. 거기에 더하여 산벚꽃이라도 점점이 흩뿌려지고, 산기슭 이곳 저곳에 분홍빛 진달래가 꽃물을 틀어기라도 하면, 산은 그 모습 그대로 한층이 커디란 꽃이 된다.

봄 산, 이 거대하고 친린한 생명의 꽃봉우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말문이 막힌다. 하지만 오히려 안심(安心)이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더없이 청명하다. 어쉴 뿐 수작을 거두니 귀도 밝아지는 모양이다. 짝짓기가 한창인 새들의 노랫소리에 꽃물이 배어 있다. 어디 얼마 품 같은 기슭에 기대어 내 몸에도 꽃물이나 들릴까 보다.

◇금산에서 내려다 본 추풍령면. 1909년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시골벽적인 한 시절도 있었지만,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말 그대로 가을 낙엽 신세로 변했다.



영 마루에 서서,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자고 간다는 추풍령 마루에 서서, 사방을 둘러 본다. 쉬어 넘는 바람도, 자고 가는 구름도 없다. 애당초 추풍령은 고개랄 것도 없는 고개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종환도 『백두대간』에서, 백두산에서 태백산까지의 산에 대해서는 "모두 어지러운 산이고 길은 두메이며, 위태로운 봉우리와 겹쳐진 험부리"라 했지만, 태백산에서 소백산을 거쳐 남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대해서는 "태백산과 비교할 바가 못된다"고 적고 있다. 특히 "속리산 아래에 있는 화령과 추풍령은 작은 열"이라 하고는, "작은 열이라 하는 것은 경치나 지나간 산맥이라는 자상한 설명까지 곁들여 놓았다. 그렇다. 추풍령은 경치나 다름없는 백두대간의 등성을 넘나드는 아트막한(약210m) 고갯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의 으뜸 고개이자 가장 부산한 백두대간의 마루가 되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말형별이던 문경 새재의 지위를 경부고속도로의 개통(1970년 7월 7일)과 함께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다. 국토의 남북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의미가 도로에 의해 재조정된 좋은 예라 하겠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위의 추풍령은 백두대간의 마루를 지나는 고개는 아니다. 백두대간의 한 부분인 높은 산 자락을 타고 넘어간 후 마루에서는 남쪽으로 살짝 비껴가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추풍령 휴게소에는, 해발 고도는 230.5m이고 경부고속도로 214km 지점에 있다는 설명과 함께



◇4번 국도 위의 추풍령. 88 서울 올림픽 상하 봉송 때 세운 표지석 뒤로 봉의산이 보인다.

생명 충만한 봄산은 '엄마의 품' 금산 석재 채굴로 벼랑만 남아

"옛날에는 문경 새재와 함께 한양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골짜기 골짜기로 써 놓았는데, 이는 사실 왜곡에 가깝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추풍령은 새재는 물론 추령에 비추어도 비추어 미미한 사잇길에 지나지 않았다. 사족 삼아 한 마디 더 보탠다. 백두대간의 마루를 지나는 추풍령은 4번 국도 위의 것이 진짜다.

관한 시비를 하느라고 또 발걸음이 늦어졌다. 추풍령을 지난 백두대간은 살짝 허리를 틀어올려 금산(384m)을 오른다. 그러나 금산의 북쪽 귀퉁이는 거의 열리다시피하여 아슬아슬한 벼랑을 이루고 있다. 이 땅의 척추가 거의 동강이 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 아담한 들산의 상층은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 두 세기에 걸칠 만큼 뿌리가 깊다. 일제 강점기 때 이미 석재를 얻기 위해 파먹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 추풍령과 운동장에서 찾아낸 일제가 박은 쇠말뚝과 연결되고 보면, 단순히 석재를 얻기 위해 석산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정기를 끊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백두대간의 의미를 새삼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다행히 해방과 함께 더 이상의 훼손은 중단되었지만 1962년 철도용 자갈을 구하려는 이유로 다시 열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벼랑을 이룬 산 꼭대기에 서니, 곧 무너져내릴 듯 어지럽고도 아찔하다. 결코 높이가 주는 아찔함이 아니었다. 경계 논리의 완고한 관성과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개발이라는 이름의 파괴가 일으키는 현기증이었다.

다행히 금산을 벗어난 백두대간은 아늑함으로 이어진다. 사방으로 보이는 게 없다 보니 오히려 산의 속 깊은 곳에 안간 기분이 든다. 덕분에, 조금 전의 생채기를 쉽게 기억 저 귀퉁이로 밀쳐 낸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자 이 일대에서는 제법 높은(502m) 봉우리가, 왼쪽으로 추풍령 저수지가 눈으로나마 갈증을 달래 준다. 지천으로 피어난 생강나무 노오란 꽃을 보며 걷노라니, 내 모습이 마치 천사들에게 나선 병

아라인 듯하다. 경이 휘둥거리 본다. 걷는 즐거움이 솟아오른다.

이렇게 걸어도 두어 시간 남짓이면 사기점고개, 일도를 따라 10분쯤 나아가니 묘향산이 코앞이다. 이곳에서는 묘향산을 뒤로하고 시멘트 포장인 된 날산간 도로를 따라 한참 내려간다. 발의 감각이 유쾌해진 않지만 흥신 중계소가 과몰처릴 울려왔을 묘향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듯하다.

추 풍령에서부터 묘향산 아래까지 거의 동쪽을 향하던 백두대간은 묘향산에서 다시 북쪽으로 허리를 튼다. 이 지점에 서부터 추풍령면과 김천시 어모면을 잇는 고갯길(작정고개)을 가르칠러 봉우리 하나를 넘으면 용문산 아래지라이다. 이곳에는 조망이 좋을 뿐 아니라 쉬어가기 적합한 열기장도 있다.

용문산(710m)정상에서 국수봉 사이는 파도타기를 하듯 오르내림을 거듭한다. 그래도 용문산과 국수봉 가운데 좁은 정망대 구실을 하는 바위를 만날 수 있어 발바닥에 안간 고통을 넉넉히 보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근에는 용문산 아래의 기도원에서 만든 엄청난 콘크리트 제단이 눈에 띄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

정망대 바위에서 크게 내려갔다 다시 솟구치면 국수봉이다. 눈 아래로는 상주

시 공성면과 외남면에 걸치는 너른 벌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먹지 않아도 주린 배를 달랠 수 있을 정도로 눈맛이 넘쳐난다. 귀로 들려쳐진 속리산 일대의 연봉들도 다 두 다리의 힘줄을 뽐낸 실려 낸다.

국수봉에서부터 1시간 가량 돌고 내리막길에 몸을 맡기면 큰재에 닿는다. 상주시 모듬면과 증성면을 잇는 이 고개 또한 높이가 330m 정도에 불과한 편안한 고갯마루다. 공성면 쪽으로는 제법 경사를 이루지만 모듬면 쪽으로는 높낮이가 희미할 정도다. 하지만 이 고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백두대간 위의 유일한 학교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폐교가 되어 우리 종족의 피폐한 현실만을 증언할 뿐이다.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였던 이 학교는 지금은 부산 북백연합에서 백두대간 생태학교라는 간판을 달아 놓았지만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 울새너스름만 더한다.

교정 한귀퉁이에 천막을 치고 나니 하늘엔 어느새 별이 초롱하다. 대간 마루에서 쉬는 이 학교 아이들의 눈망울이 한 걸음씩 다가온다. 한 귀퉁이가 아리케 온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할까, 아직도 고향을 지키고 있을까? 아니면,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의 나처럼, 서울 어느 귀퉁이에서 밭도 숨이 막혀 질식해 버린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을까?

글=윤재희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팔모주름등 (핑크)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디자인 : 대구 여래기획
전화 : 053)426-3395~6

찬덕의 연일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 일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 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과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 등 연일으로 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 〈납품형태〉 ■ 비단 연일 ■ 등등 + 비단 연일
- 완성비단연등(법당용) 빨강 · 노랑 · 연분홍

공단(비단) 연일등 완성과정



비단연일 → 등등 → 완성연등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